

국민의당 전대 막판까지 ‘安 vs 鄭·千·李’

鄭 “대선백서 공개 괜찮나”…安 “지도부가 결정할 일” 千 “安 서울시장 나가야”…李 “安 사람 쓰는 능력 부족”

마지막 TV 토론

국민의당 '8·27 전당대회' 레이스가 막바지에 접어들어 24일 당권 주자 4명은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격돌하며 불꽃 대결을 펼쳤다.

당원들에게 호소할 마지막 TV토론회라는 점에서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난타전이 이어진 가운데, 이날도 역시 후보자들의 견해는 유력 후보자로 꼽히는 안철수 후보에게 집중됐다. 안 후보를 겨냥한 질문은 주로 서울시장 차출론, 대선백서 공개, '사람 쓰는 능력'에 대한 것이었다.

정동영 후보는 이날 MBN이 주최한 국민의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대선평가 백서를 거론하며 안 후보를 공략했다. 그는 오는 25일 공개 여부 논의가 예정돼 있는 대선평가보고서를 거론하면서 “당원들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 (안 후보가) 즉각 공개에 동의하시면 내일이라도 공개될 것”이라고 돌아붙였다.

정 후보는 또 안 후보에게 “즉각 공개에 찬성이나 반대냐”라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안 후보는 “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하자, 정 후보는 “후보자 자신의 입장은 없나”라며 재차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권한은 지도부에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당 안팎에서는 안 후보가 19대 대선후보였던 만큼 전당대회가 끝나기 전 대선백서가 공개될 경우 안 후보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천정배 후보는 안 후보의 '서울시장 차출론'을 다시 꺼내들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 뒤 서울시장 후보에 현신하는 게 당과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

고 강조했다. 이에 안 후보는 “이미 여러 번에 걸쳐 답을 드렸다”며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재방송을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언주 후보도 안 후보를 겨냥해 “강연재 전 부대변인을 아느냐. 굉장히 축방받는 국민의당의 재원이었는데 왜 탈당했는지 아느냐”며 “(강 전 부대변인이) 탈당 언질을 했는데도 (안 후보가) 안 잡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라고 추궁했다.

안 후보는 이에 “탈당 언질 없었다”고 일축했지만, 이 후보는 안 후보의 ‘사람 쓰는 능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동영·천정배 후

보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도 거론됐다. 이언주 후보가 “당을 위해 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정 후보는 전북지사, 천 후보는 경기지사나 광주시장 출마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면서다.

정 후보는 “저는 정치하면서 전북지사 출마를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고, 천 후보는 “저는 지방선거에 나갈 생각이 없다. 다만 경기지사는 많은 분들이 나와 싸우길 원하지만 당의 총의로 제게 심정이의 마음으로 현신하는 차원에서 출마하라고 한다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안 후보는 토론회에 앞서 SBS 라디오에 출연해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로 당원들이 선택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안 후보는 자신이 대표직에 오르면 호남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당이나 탈당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과도한 걱정”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천 후보는 전날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달라. 당 대표의 제가 말고 안 후보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이 국민의당을 살리는 튼튼한 두 날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민생을 돌보는 등 국민의당의 방향과 속도가 확 달라질 것”이라며 자신이 당 혁신의 적임자라고 자임했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에 대표, 바른정당 이해준 대표 등과 경쟁할 때 가장 선명성 있게 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특위 ‘국민 의견 듣기’ 1개월 대장정

29일 부산부터 전국 순회 토론회…광주·전남, 31일 5·18기념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오는 29일부터 1개월간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 대토론회 형식으로 여론 수렴에 나선다.

개헌특위는 국민 토론회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 2월에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고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투표를 진행한다는 데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정부형태, 대통령 권한, 5·18정신 헌법 반영 등 헌법안 내용을 두고 여야간 입장차가 큰 상태다. 여기에 ‘개

헌보다 힘들다’는 선거구제도 개편 논의도 개헌과 맞물리면서 개헌이 예정대로 될 것인지 우려가 적지 않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개헌특위는 오는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다음달 28일까지 1개월간 전국 16개 시·도에서 전국순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전남 토론회는 오는 31일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관 대동홀에서 열린다.

국민대토론회는 기본권 보장 강화, 정부 형태 개편, 지방분권 강화 등 개헌특위가

지난 8개월여간 논의한 개헌 쟁점을 중심으로 전문가를 물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87년 체제를 뛰어넘는 새 헌법이 필요하다”며 “국민대토론회를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공적인 개헌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개헌 특위는 국민 토론회를 통해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고 활기를 되찾겠다는 계획이지만 앞으로의 여정은 순탄치만은 않다. 정부형태, 5·18 정신의 헌법반영

여부, 선거구제 개편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갈리기 때문이다.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는 여당은 4년 중임 대통령제, 내각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반영도 여권과 보수야당의 입장차는 뚜렷하다. 선거구제 개편 문제로 각 당별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개헌의 필요성, 시기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국민 상당수도 공감하고 있지만, 개헌안의 내용과 선거구제 개편 등 민감한 쟁점이 적지 않다.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하려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예결위 파행…험난한 결산 심사

임종석 비서실장·송영무 국방장관 등 불참…野 반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4일 비경제부처 결산 심사 회의는 일부 정외대 인사와 부처 장관의 불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파행을 거듭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회의를 시작했지만,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을지훈련 마지막 날에 군 통수권자가 끼어서 보좌하는 사람이 비서실장이고, 참모가 안보실장이라는 점을 강조

했지만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자 정외가 선포됐다. 예결위 회의는 오후 2시 40분대 일정이 참석 한 가운데 재개됐지만 이번엔 송영무 국방장관, 박상기 법무장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불출석한 문제를 두고 충돌이 발생했다.

야당 의원들은 송 장관 등이 불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대지 않은 것은 물론 여야 간사단 동의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백재현 위원장은 불참 장관 등이 출석하면 회의를 재개하기로 하고 정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대통령 “한·중 관계 발전 기대”

수교 25주년 축하 메시지…사드 여파 행사 축소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24일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1992년 수교 이래 25년 동안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비약적 발전을 평가하고 “시 주석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양국의 공동번영, 더 나아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맹’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메시지에서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함께 노력해 정치·경제·문화·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신뢰를 공고히 하고,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하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 주석이 언급한 ‘이견’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 국면을 지칭한 것으로서 ‘이견의 타당한 처리’는 사드 배치 철폐 요구를 예들려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사드 여파로 한중 수교 25주년 행사는 과거에 비해 규모 등이 축소, 위축된 양국관계를 반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정기국회 앞 전열정비

총남서 당·정·청 연합회…개혁 입법 전략 논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총남조직원 총회(총남총회)에서 당·정·청이 함께하는 연합회를 진행했다.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합회에는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의 입법 전략이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근 들어 ‘적폐청산’을 기차로 사법 개혁,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출소를 계기로는 사법개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적폐청산위원회의 첫 과제로 국정원 개혁을 꼽는 등 연일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번 연합회에서 민주당은 정부, 청와대 측 인사들과 적폐 청산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개혁 입법과 정부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할 구체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합회는 2017년 정기국회 대응전략, 당·정·청 소통과 협력 방안, 종합평가 등 총 3차례의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정기국회 대응전략’의 경우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현안 및 대응전략을,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을 다시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당정청 소통과 협력’ 토론회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김수현 사회수석이 사회정책을 설명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h3>부안 숙박시설(모텔)</h3> <p>여름성수기 펜션 영업가능</p> <p>격포해수욕장, 대명리조트, 해변가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2개동 룸43개) 직접 운영시 월 수익 1500만원 가능</p> <p>감정가 16억 → 매매가 10억 (용 6억, 보 1억, 실투자 4억)</p> <p>직매 010-7384-7800</p>	<h3>수익성상가매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동 상가 (6층) 45평 → 5,000만 리모델링 완비 → 즉시입주, 시비무료, 임대가능 매가 1억6천 → 9천(용5천) ◆ 상무지구 상가(4층) 45평 → 케이원상가 → (보2천, 월130만, 용7천) 매가 2억5천 → 1억9천 ◆ 상무지구 상가(6층) 19평 → 롯데마트 앞 → (보500만, 월40만, 용2,500만) 매가 1억 → 7천5백 ◆ 경기 평택시 토지 매입할부 → 전원주택, 농지 투자, 개발 → 평당 130만원 ◆ 서울 용산구 청파동상가 → 서울역 3분 → 상가 (오피스텔2개) 보600, 월70만 / 매가1억2천 <p>010-6670-9800</p>	<h3>영광주택</h3> <p>전원주택(영광읍)</p> <p>광주에서 30분</p> <p>즉시입주 가능</p> <p>내부개끗</p> <p>토지 151평</p> <p>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감정가 1억 1천 매가 9천8백</p> <p>010-2699-5300</p>	<h3>법률경매</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무지구 치평동 상가 1층 감정가 16억 → 최저가 5억7천 2) 동구 금남로 충장로 코너(15층 상가건물) 감정가 25억 → 최저가 175억(특A급) 3) 북구 삼각동 상가건물 (4층) 병원, 요양병원 적합 감정가 189억 → 최저가 85억 4) 상무지구 치평동 지하상가 (교회, 기타적합) 감정가 1억 → 최저가 7천 5) 상무지구 치평동 4층 상가코너 (병원) 감정가 5억4천 → 최저가 10억5천 6) 북구 양산동 공장 (토지 3653㎡, 건물 3971㎡) 감정가 39억 → 최저가 17억 7) 충남 흥성 상가건물 (주유소, 모텔, 식당종합건물) 감정가 55억 → 최저가 13억 8) 전주시 완산구 상가건물 (노후대비상가) 감정가 13억5천 → 최저가 9억4천 <p>특수물건, 절반물건, 상가, 토지, NPL전문</p> <p>경매교육</p> <p>매주월요일 개강</p>
--	--	--	---